

최대 40% ↓ ...GU, 14일까지 '패밀리 워크 프로모션'

글로벌 패션 브랜드 지유(GU)가 14일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최대 40% 할인가에 선보이는 '패밀리 워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 구매 시 금액과 상관없이 카네이션 일러스트 메시지 카드를 선착순 증정한다. 또 온라인스토어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에코 프렌들리 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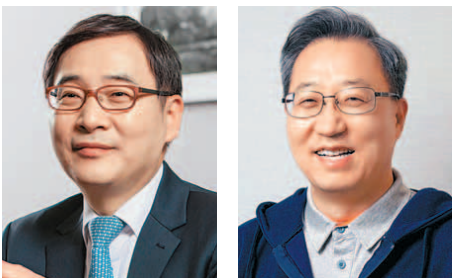
정정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케뱅·카뱅 잔걸음

“BC카드로 시너지” vs “카뱅 퍼스트”

최대주주 난제 해결...자금력 강화
케뱅, BC 업고 종합금융사로 도약
카뱅, 금융플랫폼 강화 고객 곁으로
재계 “금융업계 혁신의 중심지될 것”



이문환 케이뱅크 회장(왼쪽)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최대주주 난제를 해결한 국내 1·2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본격 2라운드에 나선다. 사진제공 |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최대주주 선정에 있어 난항을 겪었던 국내 1·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우여곡절 끝에 이를 극복하고 본격 2라운드를 펼치게 됐다.

먼저 케이뱅크는 4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 보유 주주의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가 전면엔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케이뱅크는 KT 대신 자회사인 BC카드를 최대주주로 내세우는 ‘플랜B’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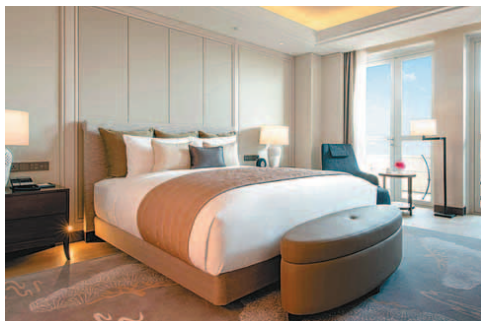
고수할 방침이다. 이미 BC카드가 4월 17일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230만9942주)를 363억2100만 원에 취득해 케이뱅크 2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6월 18일 주금납입일에 추진 중인 594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에 오를 계획이다. BC카드가 은행업을 보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막대한 결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양사의 시너지를 통해 종합금융사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2019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은행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의 ‘카뱅 퍼스트’의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 앱을 2.0 버전으로 개편하고 신한·KB국민·삼성·씨티카드와 제휴해 각각 다른 혜택을 담은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등 금융 플랫폼 기능을 강화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공개(IPO)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 2021년 7월 출범 예정인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가입자 1600만 명의 토스 앱을 기반으로 중신은행 개인고객과 소상공인 고객을 집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주목을 받는다면 그간 외연 확장에 한계를 보이며 ‘찾잔 속 태풍’에 그쳤던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업계에 새로운 혁신의 물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파라다이스시티 ‘힐캉스’ 프로모션
“휴식·미식·예술...한곳에서 즐기자”

영종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됐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5월 동안 진행한다.

치킨 몸과 마음의 휴식과 심리방역을 선사하는 ‘힐캉스(힐링+호캉스)’ 프로모션이다. 휴식과 미식에 예술, 이벤트 등 문화생활을 접목해 참여했던 여가활동을 한 곳에서 즐기는 ‘원스톱 안식처’로 프로모션 테마를 잡았다.

객실 패키지는 가족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들을 위해 모두 성인 2인, 어린이 2인 기준으로 구성해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겨냥했다. ‘더 코지 모먼트’ 패키지는 다양한 부대시설 이용이 특징이고, ‘얼리버드 30시간 스테이’ 패키지는 2주 전 예약하면 30시간의 ‘룸콕’을 만끽할 수 있다. ‘허니문’ 패키지는 디럭스 스위트 객실(사진) 투숙과 함께 디너를 인룸 다이닝 서비스로 제공해 객실에서 ‘엔택트 허니문’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뷔페 레스토랑 온더플레이트는 5월 동안 멤버십 회원에게 런치와 디너에 한해 주중 ‘2+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파 씨메르는 찜질사파권 요금으로 아쿠아스파 존까지 이용할 수 있는 ‘헬로 어게인’ 2인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밖에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서는 ‘영원의 숲’ 기획전을 10일까지 진행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내가 산 복권, 교통약자에게 든든한 발”

복권기금, 교통약자 지원 큰 몫
광주새빛콜 연간 50만건 서비스

동행복권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사업 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새빛콜은 장애인 2만7704명과 만 65세 이상 노약자 19만5479명(2019년 기준) 등 광주 지역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연간 50만 건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새빛콜은 2015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총 예산 122억 원 가운데 58%인 70억 원을 복권기금으로부터 받아 21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5월 새로운 관제시스템 교체 등을 통해 인공지능 자동배차 및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분리배차를 시행해 이용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할 예정이다. 또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20대의 콜밴을 배치해 교통약자들을 투표장에 무료로 태워주는 선거지원 서비스도 진행했다.

김정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건



광주광역시 새빛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사진제공 | 동행복권

전마케팅팀장은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구입하면 이중 약 420원이 교통약자

이동권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대기업 평균 연봉 7920만원...금융사 상위권 랭크

2019 국내 500대 기업 조사 결과

국내 500대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2019년 1인당 평균 7920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18개사의 2019년 직원 연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7920만 원을 수령해 전년보다 0.6% 올랐다.

업종별로는 금융지주와 증권사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다. 각각 1억1780만 원, 1억430만 원으로 22개 업종 가운데 역대 연봉을 기록한 곳은 이들 두 곳뿐이었다. 이어 여신금융 9280만 원, 은행 9200만 원, IT·전기·전자 9050만 원 등의 순으로 평균 연봉 상위 5개 업종 중 1~4위를 금융권이 차지했다. 반면 유통은 4160만 원을 받아 유일하게 5000만 원에 못 미쳤다. 식음료(5480만 원)와 생활용품(5980만 원) 등 B

2019년 500대 기업 직원 평균 연봉			
순위	기업명	업종	연봉(원)
1	KB금융	금융지주	1억3340만
2	SK에너지	석유화학	1억2820만
3	SK인천석유화학	석유화학	1억2750만
4	하나금융	금융지주	1억2280만
5	SK종합화학	석유화학	1억2270만
6	NH투자증권	증권	1억2050만
7	코리안리	보험	1억1920만
8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보험	1억1560만
9	KB증권	증권	1억1550만
10	SK하이닉스	IT·전기·전자	1억1380만

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업종이 연봉 하위권을 형성했다.

기업별 연봉 순위도 금융사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했다. KB금융이 1억3340만 원으로 1위였으며 하나금융(1억2280만 원, 4위), NH투자증권(1억2050만 원, 6위), 코리안리(1억1920만 원, 7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1억1560만 원, 8위), KB증권(1억1550만 원, 9위) 등 톱10 내 6곳이 금융사였다.

아울러 SK에너지(1억2820만 원, 2위)와 SK인천석유화학(1억2750만 원, 3위), SK종합화학(1억2270만 원, 5위), SK하이닉스(1억1380만 원, 10위) 등 SK 계열사가 나머지 4곳을 차지했다.

정정욱 기자

교육

에듀윌

장소 제약없는 시면접 도입

코로나19가 앞당긴 ‘언택트’ 채용 시대 개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바깥은 채용시장에도 불었다. 비대면 접촉이라는 ‘언택트(Untact)’가 유행하면서 ‘언택트 채용’이라는 새로운 채용 제도가 생겨났다.

최근 삼성, 현대차, 롯데, SK, LG 등 대기업에서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 비대면

구직자 면접 등 다양한 채용 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맞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에서도 AI면접을 도입하고 ‘언택트 채용’을 시작한다.

에듀윌은 업계 최초 ‘주 4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많은 지원자들이 물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1차 대면면접과 인성검사를 비대면의



AI면접으로 대체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장소의 제약 없이 해당 링크로 접속해 지정된 시간 내 화상으로 면접을 보게 된다.

에듀윌은 AI면접을 통해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채용시스템을 갖춘 전망이다. 신입사원 공채는 학력, 자격증 등의 스펙보다 지원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경력사원 채용에서도 지원자의 업무 적합

성과 채용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듀윌 인사혁신실 황소영 실장은 “에듀윌은 매년 큰 폭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교육 산업의 특성상 ‘인재’가 가장 큰 자산이자 투자”라면서 “AI면접을 도입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채용 프로세스를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채용시장이 예년에 비해 많이 달라진 만큼 취업 준비생들은 더욱더 꼼꼼한 취업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조언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에잇세컨즈 론칭 8주년 기념행사 진행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SPA(제조직매입) 브랜드 에잇세컨즈가 ‘론칭 8주년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사진)를 진행한다. 10일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신규 멤버십 가입 및 기존 멤버십을 연동한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및 사은품 혜택을 마련했다.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즉시 할인을, 온라인몰 SSP샵에서 첫 구매 시 20% 할인을 제공한다. 또 25일까지 리넨 셔츠, 레터링 티셔츠, 데님 트러커, 데님 팬츠, 슬랙스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